

'도내 중기 어려움 해결해드립니다'

전북비즈니스지원단, 올해 총 5600여건 애로 상담 실시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기준 85.2점 달성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의 '전북비즈니스지원단'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9년부터 법무, 경영, 창업, 기술, 세무, 특허 등 11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비즈니스지원단은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신청 받은 기업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올해 총 5,600여건(19년 9월 기준)의 애로 상담을 실시했

며,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기준으로 85.2점을 달성하여 상당수의 기업들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비즈니스지원단'은 다양한 컨설팅 수요를 고려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매주 1회(목)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에 소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군산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매주 2회(화, 목) 현장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전북비즈니스지원단'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단기간 현장 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베트남 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A기업은 현지 시장 및 국제운송물류 지원 정보 등 현장클리닉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쌀로 만든 디저트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고 제조 기술이 미흡했던 B기업은 현장클리닉 위원이 쌀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공정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던 저온 숙성 기술을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전북비즈니스지원단은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적용시기의 연장(5년→7년), 정부사업 평가 시 수출실적 증명 인정 범위의 확대(대

외무역법 → 대외무역법 또는 관세법에서 발급) 등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청취하고 있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전북비즈니스지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북중소기업청 1층 종합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북비즈니스지원단(☎063-210-6436~8) 또는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하거나, 온라인(www.bizinfo.go.kr/link)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은 학생들이 교실 안에 정원을 직접 꾸미고 가꾸는 '그린스쿨 사업'을 내년까지 2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우리학교 교실 정원 직접 꾸며요'

농진청 '그린스쿨 사업' 내년까지 20개 학교로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학생들이 교실 안에 정원을 직접 꾸미고 가꾸는 '그린스쿨 사업'을 내년까지 2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린스쿨 사업'은 식물과 공기 청정 기능을 겸한 수직정원을 교실에 만들어 학생과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7.1㎡, 300여 개의 공기정화식물을 놓은 식물 벽에 물을 주어 관찰하며, 식물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4개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시·군 교육청과 협업체 서울·세종·공주·전주의 8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20개 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직정원을 임대 형태로 운영해 관리 및 임대비용을 학급당 월 10만 원 이하로

낮춰 보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수직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전주 만성초등학교 학생 73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몸이 건강해지고(70.3%), 기분이 좋아졌다(76%)고 응답했다. 학생 10명 중 8명(81.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으로, 그린스쿨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식물이 일반 공기청정기와는 다른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초미세먼지 30% 저감을 목표로 전국 단위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학생들이 자연을 통해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태풍 피해 농가 일손돕기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9월 한 달 동안 잇따라 발생한 태풍으로 수확이 늦어진 농가의 일손 돕기에 나섰다.

농촌진흥청과 소속연구기관 직원 40명은 지난 8일 정읍시 용동면에 있는 밭작물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 시기를 맞은 고구마 캐기와 막바지 고추 수확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일손 돕기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 10여 명도 함께 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지난 태풍으로 밭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수확 작업이 더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현재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이동 방향이 불확실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수확이 가능한 작물을 미리 거둬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다.

일손 돕기에 나선 품목별 농업전문가들은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확 이후 작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보관방법 등을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4일과 7일, 2020년도 신규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했다.

마을기업 준비하기 전 알아둬야 할 것은?

도·경진원, '전북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실시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난 4일과 7일, 2020년도 신규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입문, 심화과정의 2단계로 구성됐다.

입문과정은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과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됐고, 심화과정은 도내 우수 마을기업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교육 첫날에는 사전 신청 한, 7개 시·군 10개 공동체와 교육을 진행했

으며, 둘째날에는 5개 시·군 6개 공동체가 교육을 완료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가 지역자원을 활용, 지역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매년 행안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공동체는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24시간의 설립 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방식이 올해부터는 16시간의 설립 전 교육과 사업 선정 이후 8시간의 공동교육으로 변경됐으며,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문과정은 5명 의무참석이지만 심화과정 이후는 2명 이상 참여로 완화되었다. /김윤상 기자

총 16시간의 설립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신규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마을기업의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을 위한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해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으며, 마을을 지탱하는 구심점으로서 마을기업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지역 공동체 기업인 마을기업을 통해 가장 가까운 일자리가 제공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공동체가 마을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남원농협, 이백면 계산마을과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협약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최근 이백면농협에서 이백면 계산마을과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간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협약 및 명예이장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농협 조합장 박기열,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장 안영업, 이백면 계산마을 영농회장 유중근, 부녀회장 김양임, 이백면장 김희정, 이백 파출소장 이억수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남원농협의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 CEO,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상호교과교과 인정을 나누며 마을의 숙원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도농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운동이다.

이 자리에서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은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대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참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마을과 질적 교류·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정기적 관계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이백면 계산마을에는 "농업인에게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과 동반자의 관계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aT, 캄보디아·미얀마 몽골 등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남방·신북방지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세일즈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일즈 로드쇼는 현지 수입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로드쇼는 캄보디아·미얀마, 몽골·러시아에서 8일 동안 총 85개 바이어와 15개 수출업체가 참가하여 184건의 상담을 통해 유자차 100만 달러, 과즙음료 68만 달러, 간편죽 24만 달러, 감귤 18만 달러 등 총 409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캄보디아·미얀마 수출상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남방·신북방지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세일즈 로드쇼를 개최했다.

'유자차, 감귤, 한라봉' 등 상큼한 맛의 제품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그 외에도 아침 식사대용으로 죽을 먹는 식문화가 있는 캄보디아는 '죽' 제품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꼽았다.

몽골·러시아에서는 '신선 배'가 아

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선물용에 좋은 프리미엄 과일이라는 평가 받았다.

또한 현지 SNS를 통해서도 유행하고 있는 '떡볶이, 라면, 과일 음료'에 대해서도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았다. /김윤상 기자

이스타항공, 27일 인천-마카오 신규취항

이스타항공이 27일 인천-마카오 신규 취항을 확정하고 스케줄 오픈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8일부터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및 모바일에 마카오 스케줄을 오픈했다. 10월 16일 정저우, 17일 장가계, 19일 하이커우, 20일 화젠, 30일 가오슝 등

하반기 중국, 대만에 이어 27일 마카오까지 신규취항을 통한 본격적인 노선 다변화에 나서게 됐다.

아울러 신규취항 노선에 대한 특가 이벤트도 잇따라 오픈한다.

이스타항공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24일까지 신규 취항하는 청주-하이커우, 청주-장가계 노선에 대해 '차이

나는 중국여행'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주-하이커우는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탑승 가능한 항공권을 편도총액유임 최저가 9만1600원부터 구매 가능하며, 청주-장가계는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탑승 가능한 항공권을 편도총액유임 최저가 8만 29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인력개발원 지속 운영을"

전북상협, 건의서 전달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전북인력개발원 휴원 소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주, 군산, 익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지난 5일 전북인력개발원의 지속 운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북지역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부처에 전달했다.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전북인력개발원은 지역의 대표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지난 1997년 군산에 설립된 이후 8천7백여명의 전문기술인을 배출하고, 3만6천여명의 재직자를 훈련시키며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일조해 왔다."면서, "지역경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초도화된 상황에서 전북인력개발원이 급감한 훈련수입과 운영을 저하할 이유로 휴원이 결정된다면 나라로 떨어진 지역경제

를 버팀목으로 내오는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전라북도 경제 활성 대책으로 세라믹 군산지역에 신재생 에너지클러스터 구축과 전자차 생산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산업 육성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홍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전북인력개발원이 일시적인 재정상의 이유로 휴원 결정은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도민들의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라며,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활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라며,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활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누구에게나 편리한 금융'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비대면채널 이체서비스 개선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9월 27일부터 비대면채널 이체서비스를 개선하여 배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채널 이체서비스 개선은 전북은행의 모토인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에서 모티브를 얻어 '누구에게나 편리한 금융'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메뉴의 통합'이다. 기존에 즉시이체, 예약이체, 빠른이체 등 개별 이체거래들을 하나의 메뉴로 통합하여 거래동선을 단순화했다. 다음으로 '간편이체서비스'의 제공이다.

간편이체서비스란 이체거래 시에 이용자의 로그인 수단 및 거래 금액에 따라서 추가인증 없이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전북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이용고객이라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간편이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개선을 통해서 생활 밀착형 편의기능도 추가 되었다. 자주 쓰는 통장 표시, 이체 메모, 동일하게 이체하기 등 각종 편의기능을 이체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체서비스 개선은 배타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앱에서만 이용해볼 수 있다. 약 한 달 동안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인터넷뱅킹과 기업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오는 11월 4일 정식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체서비스 개선을 시작으로 연 내에 뉴스마트뱅킹 로그인 절차 개선 등 모바일뱅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연말에 전북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비대면채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